

박근혜 전 대통령, '총선 코앞' 내달 5일 대구서 회고록 북콘서트

북콘서트 장소·시간에 다양한 관측…조원진 등 정치권 인사 참석 안 할 듯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찾은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음 달 대구에서 자신이 접촉한 회고록 북콘서트를 연다. 총선을 두 달여 앞둔 시점에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측은 회고록 출판 일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지만, 북콘서트 장소와 시기를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세력 결집 시도나", "특정 후보 지원용 아니냐"는 등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1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월 5일 오후 2시 대구 한 호텔에서 회고록 북콘서트를 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선별한 300여명에게 북콘서트 일정을 공지하고 참석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호텔 측에 전달 된 참석 인원은 500명이다.

박 전 대통령은 북콘서트를 통해 회고

록에 관한 설명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메시지만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명 '진박'으로 불린 조원진 우리공화

당 대표 등도 초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영하 변호사는 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북콘서트와 관련한 연합뉴스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만 답했다.

TK(대구·경북) 정치권 인사들의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TK 지역 한 의원은 "박 전 대통령과 오래전 인연이 있으면 북콘서트에 참석 할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이 시점'에라는 생각은 듦다"고 말했다. 회고록에는 박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을 포함해 2012년 18대 대선이 치러진 이후부터 2022년 3월 대구 달성군 사저에 입주하기 전까지 과정이 담겼다.

/ 송원기 기자



공수처, 해병대 '채상병 사건' 김계환 사령관 압수수색

공수처, 해병대 '채상병 사건' 김계환 사령관 압수수색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조사와 관련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8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해병대 사령부의 해병대 사령관·부사령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사건 조사보고서를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지난해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이첩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됐다.

/ 곽동현 기자

"새롭게 태어나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으로 첫발

김관영 도지사 "전북이 대한민국 미래…5대 산업 육성할 것"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사하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새로운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이 18일 오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ayah당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출범식에는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회의원, 전북 지역 시·군 단체장, 도민 등 2천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출범식은 전북자치도 출범 경과보고, 기념사, 흥보영상 시청, 축사, 퍼포먼스 등

으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북이 비약적 발전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접 꼼꼼히챙기겠다"며 "무인 이동체 산업, 이차전지, 국제케이팝학교를 비롯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임을 도지사로서 당당히 선포한다"며 "전북은 대한민국 미래 첨단산업의 시험

대로서 국가가 부여한 소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자치도는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에 특화된 자원을 활용해 스스로 발전하고 도전할 기회를 얻었다"며 "농생명산업,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 등 5대 핵심 산업을 육성해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지방 분권이 보장되는 전북자치도는 국가균형발전과 진정한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며 "똘똘 뭉쳐 새로운 미래를 담대한 마음으로 개척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임상규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자치도 출범 배경을 설명하고 영상을 통해 자치도의 브랜드를 내빈들에게 소개했다.

여린이 중창단과 대학생들도 전북자치도의 새로운 로고송 '다함께 전북'에 맞춘 공연을 선보여 흥을 높였다.

출범식은 이날 오전에 모두 마무리됐다.

/ 박민준 기자

빗썸 실소유주 '1천억대 사기 혐의' 2심도 무죄

1천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코인 상장 확약과 관련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1심 판단은 타당하다"며 "일부 과장된 진술, 고지 의무 위반 등 사정은 민사상 책임과 관련해 일부 고려될 수 있으나 계약 체결 자체를 형법상 처벌 대상인 사기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8년 10월 BK그룹 회장 김모 씨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를바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천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씨의 말을 믿고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했다. 하지만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씨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 오정한 기자

검찰, 'JTBC 보도 태블릿PC' 최서원 측에 반환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8)씨 측에 반환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의 딸 정유라(28)씨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해당 태블릿PC를 돌려받았다.

태블릿PC를 최씨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 3주 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이원중 김양훈 윤웅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같은 해 12월 28일 대법원이 국가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함에 따라 판결이 확정됐다.

이 태블릿PC는 지난 2016년 10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JTBC가 최씨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입수해 보도한 것이다.

JTBC는 보도 이후 해당 태블릿PC를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관련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한 뒤 봉인해 보관해왔다.

최씨는 이 태블릿PC가 자신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자체적인 '검증'을 하겠다며 반환을 요구해 왔다.

최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낸 진술서에서 "태블릿 PC에 어떻게 국가기밀문서가 삽입됐는지, 누가 조작했는지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태블릿PC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신지호 기자



"Hello, 미래!"

기다리기만 한다면
준비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힘이 될 미래산업
KDB산업은행이
키워가겠습니다

내일이 보고 싶다면 KDB산업은행

'이선균 수사' 발단은 유흥업소 실장 아닌 협박범의 제보

경찰, '톱스타 내사' 최초 보도 닷새 전 이미 이씨 형사입건



이선균 협박한 영화배우 출신 20대 여성

됐는데 이씨는 그보다 앞서 10월 14일에 이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이씨 관련 첫 보도가 나온 시점은 10월 23일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보도 당시 (피의 사실 공표 문제로) 언론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인천경찰청이 이번 마약 사건으로 수사하거나 내사한 10명 가운데 A씨 등 6명의 조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최근 숨진 배우 이씨의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조만간 종결될 예정이며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 등 나머지 4명은 수사가 끝나 검찰에 송치됐고 이들 중 2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나머지 입건자 1명의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하고, 내사자 3명을 수사 대상으로 전환할지는 계속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진행 과정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임현주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사이버선거범죄 근절 홍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9일부터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 당내 경선·투표독려엔 허용

‘가상 영상’ 표시해도 위법

포토샵·그림판으로 만든 건 허용

오는 29일부터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다만 당내 경선 운동이나 투표 참여 권리 활동, 의정활동 보고 등에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 등 선거운동 위법행위 예방·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선거운동 활용이 금지되는 것은 딥페이크 영상처럼 AI 기술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이다. AI 기술로 만든 가상임을 표시해서 활용하더라도 법 위반이 된다.

단 포토샵·그림판처럼 AI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만든 이미지·영상 등은 선

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다.

AI 기술을 사용해 만든 이미지·영상 등도 총선 선거운동이 아닌 당내 경선 운동, 의정활동 보고, 투표 참여 권리 활동,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는 활용할 수 있다.

선관위는 지난 11일부터 AI 전문가와 모니터링 전담 요원 등으로 구성된 감별반을 확대 편성·운영하고 있다.

딥페이크 영상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의 심 사례를 찾으면 시각적 탐지, 범용 프로그램 활용, AI 자문위원 등 3단계를 거쳐 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포털, AI 플랫폼 관계사 등과의 협조를 통해 위법성이 의심되는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삭제하고, 삭제 요청에 불응하면 과태료도 부과 할 계획이다.

AI 댓글 자동 생성 프로그램 등을 통한 댓글 자동 게시는 발견 시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 한자수 기자

특허청,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기간 중 위조상품 단속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기간인 19일부터 2월 1일까지 올림픽 관련 위조 상품 유통 방지를 위한 캠페인과 함께 판매 현장을 단속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최근 온라인 사진모니터링을 통해 대호 마스코트인 뮤지의 대형 조형물을 불법으로 유통하려던 업체를 적발, 관련 판매 계시물을 삭제했다.

눈뭉치를 형상화한 뮤지 조형물은 포토존으로 활용되기도 하는데 현재 조직위원회 승인을 받아 서울역·인천공항·강릉역 등 인구 유동이 많은 다양한 장소에 설치돼 있다.

/ 유현철 기자

경찰이 이씨의 마약 의혹을 처음 받은 시점은 이로부터 한 달 뒤인 지난해 10월 10일께다.

경찰이 이씨의 마약 의혹 제보를 처음 받은 시점은 이로부터 한 달 뒤인 지난해 10월 10일께다.

전직 배우인 B(28·여)씨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A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경찰에 체포

소방서 찾은 검찰총장 “소방관 노고에 감사…구조방해 엄벌”

일산소방서 격려방문…순직 소방관 유족에 위로 서신 전달



소방관 격려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은 17일 경기 고양시 일산소방서를 찾아 현장에서 구급·화재 진압 활동을 하는 소방관들을 격려했다.

검찰총장이 일선 소방서를 찾는 일은 드문 일이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일산소방서에 도착해 박준길 서장을 만났다. 허정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과 대검찰청 및 소방서 간부들과 함께 약 10분간 간담회를 가졌다.

이 총장은 “내피를 뺏는데도 행동하기가 상당히 빠빠하고 불편하다. 화재 현장

에서는 내피까지 입으면 진짜로 활동하

시는데 쉽지 않은 거라는 생각이 든다”며 “늘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한 구급대원은 이 총장에게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심심찮게 일어나는데 그럴 때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든 시간을 보낸다”고 토로했다.

이 총장은 “여러분께 큰절해도 아쉽지 않을 분들이 왜 구해주고 도와주는 분들을 폭행하는지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소방 방해, 응급의료 방해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해서 주황색 유니폼을 입으신 분들이 하는 일은 따르고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사회에 바로 설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새내기 소방관들에게는 선배 공직자로서 “대기하고 출동하는 일, 준비하는 일 모두 국민과 공익을 위한 일이다. 그것이 가장 큰 보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일선 격려방문에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상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 송진경 기자

경찰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구속영장 신청…“돈 다 썼다”

=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 피의자 최모(46)씨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그는 2022년 4월 27일부터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유액 46억2천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

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원 중 약 7억2천만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최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했다.

동시에 수사관서인 강원경찰 반부패수사대와 코리안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 경기남부청 인터폴팀으로 구성된 추적팀을 편성해 1년 4개월간 최씨의 뒤를 쫓은 끝에 지난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최씨를 검거했다.

지난 17일 국내로 송환돼 취재진 앞에 선 최씨는 횡령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빼돌린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또 단독변임을 주장하며 “회사와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 권정석 기자

與, 이태원참사특별법 '尹거부권 행사' 건의…野에 재협상 제안

윤재옥, '김여사 명품백 사건'에 "의도적 함정 만든 몰카 공작" 비판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에는 특별법을 재협상하고 제안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태원 특별법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애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이제껏 특별한 조사가 필요 한 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처리함에 있어 여야가 합의 처리해 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조위가 불 송치나 수사 중지된 기록까지 열람할 수



원내대표 발언 듣는 비대위

있도록 규정한 것도 그동안 세월호 참사 등 어떤 재난 관련 특조위에도 유사한 입법례가 없다. 재탕, 삼탕, 기획 조사 우려 가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여야 협상을 진행해 몇 가지 독소 조항을 빼면 합의에 이를 정도로 의견이 접근됐는데 애초 민주당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가지고 재협상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관련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윤 원내대표는 "별도로 논의되진 않았지만 상대의 신분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접근해 함정을 만든 소위 '몰카 공작'이고 정치 공작"이라고 답 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천 룰과 관련해서는 "의원들이 다양한 질문을 많이 냈고 사무총장이 충분히 답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 지역구 3선 의원(경선 득표율 감산이) 최대 35%까지 되지 않나. 상 대가 가점 요인이 있으면 40% 이상까지 차이가 나니 걱정하는 분이 있었지만, 많은 분이 문제 제기하거나 우려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 송유영 기자

국방부 "한미일 3국 지상 연합훈련 계획은 없어"

국방부는 18일 한국, 미국, 일본 3국이 참여하는 지상 연합훈련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허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언 론브리핑에서 한미일이 지상 연합훈련도 추진한다는 국내 한 언론의 보도와 관련 한 질문에 "지상에서의 훈련은 계획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전 대변인은 '우리나라 땅에선 계획되

지 않지 않다는 뜻이냐'는 추가 질문에 "어디서 하든 그런 계획(한미일 지상 연합훈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 했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 위상은 작년 11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을 통해 올해 1월부터 '다년간 3자 정례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5~17일에는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해상훈련이 미 해 주진 항공모함 '칼빈슨함' 등 3국 합정 9 척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됐다.

전 대변인은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육일기 형상의 자위함기를 달고 이번 한 미일 해상 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 측 이 용인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각국은 자기네 해군을 표시하는 기를 당연히 달 게 돼 있다"며 "공해상에서 하는 훈련에 자국의 해군을 상징하는 깃발을 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관례적으로 다 통용되는 일인데 그것을 우리가 용인하고 말고 할 사항이 아니다"고 답했다. / 정현준 기자



총선 앞두고 중앙선관위 찾은 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 "총선 업무 동원된 공무원 열악한 대우 개선해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

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18 일 "제22대 총선 업무에 공무원을 강제 동원하는 일을 멈추고 충분한 보수를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양 단체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중앙선 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2대 총선 관련 예산 편성을 보면 정당 추천을 받은 투개표참관인의 6시간 근무 수당은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다"며 "이보다 더 긴 시간에 많은

일을 하는 공무원은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공노 등에 따르면 공무원 등으로 구 성된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의 수당은 각각 19만원, 13만원, 7만5천 원이다.

이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우를 받으면서 임시공휴일인 선거일에 14시간이 넘는 고강도 사무 업무를 맡는 현실을 꾸준히 지적해 왔으나, 정부는 별 다른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

했다.

아울러 이미 투개표 사무업무의 60% 이상을 공무원이 담당하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부정선거 방지라는 명분을 앞세워 오직 공무원만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예고 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공무원 노동자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일하는 인공지능(AI)이 아니다"라며 "선거사무와 관련해 충분한 보상안을 만들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기행 공노총 성남시청노조 위원장도 "선거사무에 시달릴 것을 생각해 벌써 각종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직원이 많아졌다"며 "정당한 보상과 휴식을 제공하지 않겠다면 공무원 노동자 누구라도 선거사무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강조했다.

양 단체는 "총선에서 공무원 노동자를 수검표에 동원하려는 계획은 명백한 '단체협상 위반'"이라며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 조형민 기자

일상을 플랫폼하다



LG유플러스 4대 플랫폼

초개인화된 맞춤형 통신 경험을 제공하는
라이프스타일 플랫폼_너겟

축구, 야구, 골프 등 모든 스포츠 팬을 위한
놀이 플랫폼_스포카!

아이의 배움습관을 키우는 국내 최초 맞춤 교육 서비스,
성장케어 플랫폼_아이들나라

메타버스 공간에서 친구와 실감나게 체험하며 학습하는
Web 3.0 플랫폼_키즈토피아

LG유플러스의 4대 플랫폼이
모두의 일상을 원더풀하게 바꿉니다

LG U+

이준석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연간 12만원 지급"

개혁신당 공약…허은아 "기업인에 '떡볶이 거부권'·대통령 '황제출장방지법' 추진"



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65세 이상 노년층에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원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소진하면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 되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예상 소요 비용은 올해 기준 연간 1조2천억원가량이라고 이 위원장은 설명했다.

허은아 청당준비위원장은 회견에서 국가가 기업에 준법 의무, 납세의무 외에 준 조세 성격의 요구나 비자발적 기여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허 위원장은 기업 총수들이 유통업체와 부산에서 떡볶이 등 분식을 함께 먹은 장면을 거론하며 "필요하다면 22대 국회에서 기업인들의 '떡볶이 거부권'을 보장하는 '떡볶이 방지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정훈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은 18일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떠 만든 이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논쟁 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이 2022년 기준 연간 8천159억원이라는 통계를 언급, "이 비용은 현재 대부분 도시 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아 미래세대에 전가되고 있다"며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복지 비용을 자자체에 떠넘기는 매우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제도가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서울 등 대도시 거주 노년층에만 혜택이 집중돼 지역 간 공정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

민주, '이재명 1cm 열상' 문자 작성한 총리실 공무원 고발

"상처 부위 1.5cm→1cm로 축소·경상" 추가…허위 공문서"

'1.5cm 열상'이라고 적혀있었는데 이후 대테러종합상황실이 배포한 문자엔 상처 부위가 '1.5cm'에서 '1cm'로 축소됐다고 문제 삼았다. 또 소방 1보의 '흉기'라는 표현이 해당 문자에선 '과도'로 바뀌었고, '출혈량 적은 상태', '경상 추정' 등의 표현도 추가됐다며 이는 사건 과정을 축소하려는 의도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고발장 제출 후 서울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 사실이 담긴 총리실 대테러종합상황실의 문자가 사건 초기 테러 사건 축소·은폐 시도의 시발점이 됐다"며 "문자 를 작성한 사람 및 지시한 사람 모두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건 발생 직후 소방 내부 1보 보고 문서엔 '목 부위

/ 민성호 기자

노소영-김희영 소송에…최태원측 “노, 억지주장…언론플레이”

동거인 위자료소송 전날 입장문… “1천억’ 억지, 본인도 1천140억 받아”

SK그룹 최태원(63)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엔씨재단 이사장에게 쓴 돈이 1천억원이 넘는다는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의 주장에 최 회장 측이 “왜곡된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문제의 주장은 김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노 관장 측의 입장으로, 두 사람 사이의 소송 첫 변론을 하루 앞두고 최 회장이 관여해 반박 견해를 제시한 것이다. 이와 별개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 소송 중이며 현재 2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송을 대리할 변호사 선임, 가정사 등을 놓고 장외 공방을 벌여왔다.

최 회장의 대리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이 언론에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최 회장 개인 부동산, 미술품 구입, 벤처 투자금, 사회공헌 기부금이 대부분”이라며 “이를 합산해 김 이사장에게 증여했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금융자료는 2015년 이후 최 회장이 소유한 모든



최태원 회장

부처빵 쇼핑백에 성경 구절…불교계 모욕 논란



부처빵 쇼핑백

경북 경주의 석굴암 본존불상을 본떠 만들었다는 경주 명물 ‘부처빵’이 불교를 모욕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주 부처빵 쇼핑백에 쓰인 성경 문구가 불교 가치를 깎아내렸다는 취지의 글이 확산됐다.

부처빵은 눈을 감은 채 온화한 미소를 띤 부처의 모습을 형상화한 빵으로 최근 경주에서 판매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논란은 부처빵을 담은 쇼핑백에 ‘ACTS 19:26’이란 문구가 들어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이 문구는 성경의 사도행전 19장 26절을 가리킨다.

이 구절은 “이 바울이 예배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란 내용이다.

쉽게 말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뜻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부처상을 형상화한 빵을 팔면서 성경을 인용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한 것은 불교를 모독한 것 아니냐”란 비판이 나돌고 있다.

논란이 퍼지자 해당 업체 측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저는 무교인데 부처빵은 빵일 뿐 신이 아니란 뜻으로 구절을 넣은 것이지 숨은 비밀은 없다”며 “불교는 불교라서 못 먹겠다 하고 기독교는 기독교라서 못 먹겠다고 해서 사람이 만든 건 신이 아니란 성경구절이 있길래 포인트로 넣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부처님을 모욕할 마음이 없다는 의미를 중점적으로 전달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종교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점을 간과해 죄송하다”며 “구절은 삭제하고 판매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현승 기자

‘드라마 촬영 중 말 학대’

KBS 제작진 3명 벌금 1천만원씩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과정에서 말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제작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S 프로듀서 김모 씨 등 제작진 3명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KBS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 말이 받았을 고통, 방송 이후 야기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이어 “실제 말을 넘어지게 하지 않고 스턴트맨이 낙마하거나 유사한 모형을 제작해 사용하는 방법,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며 “표현의 사실성이 떨어진다거나 제작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정 등으로 말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선택한 것에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관행적



촬영 방법을 답습해 범행에 이른 점, 이후 KBS 주관 아래 방송 제작 지침을 제정해 시행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21년 11월 2일 낙마 장면 촬영을 위해 말의 앞다리를 밗줄로 묶은 뒤 달리게 해 바닥에 고꾸라지게 한 뒤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고꾸라진 말은 촬영 당초 뒤 죽었다.

문제의 촬영 장면은 2022년 1월 방송된 ‘태종 이방원’ 7회에 담겼다.

/ 노건우 기자



‘총선 출마설’ 이성윤 검사 “기능성 열려있지만 결정된 것 없어”

대검, ‘조국 주최·최강욱 진행’ 행사 간 이성윤 중징계 청구

대검찰청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진행한 행사에 참석한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은 이달 4일 검찰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위원이 도서 출간기념행사 등에서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외부 인사와 부적절한 교류를 해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게 징계 청구 사유다.

이 위원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행사 진행은 당시 현직이었던 최 전 의원이 맡았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은 “조 전 장관께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시고 엄청난 고초를 겪으시는 걸 그저 바라만 봐야 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 위원은 2019년 12월 서울중앙지검 이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할 때 형사사건의 검찰사무 등을 보고받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이후 2020년 1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해 이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했다.

부임 이후인 같은 달 23일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최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법무부는 이 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공소유지와 기소를 책임진 피의자들

과 접촉했다는 점에서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윤리강령 위반 등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검찰을 진행했고, 이후 대검에 이 위원에 대한 징계 청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경직으로 나뉘는데, 정직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검찰총장의 청구에 따라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 박정민 기자

‘건조한 날씨’ 부산서 잇달아 산불 발생

건조한 날씨를 보인 부산에서 17일 산불이 잇달아 발생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3분께 부산 천마산 9부 능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인력 101명과 소방헬기 등 장비 27대를 투입해 1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으며 임야 160여㏊가 불에 탔다. 이에 앞서 낮 12시 40분께는 천마산 5부 능선에서 불이 나 잡풀 15㏊가 탔다.

관계 당국은 담배꽁초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진성훈 기자

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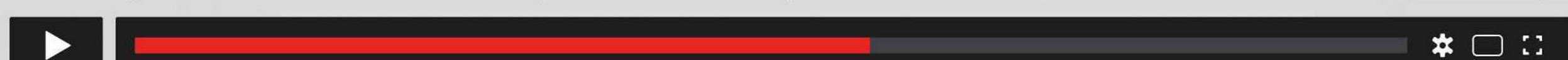
LIVE

수출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해외 수입자 신용조사부터 수출 관련 자금조달, 수출보험 가입, 수출대금 회수까지

K-SURE가 수출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ksure



‘정치쇄신 논의’ 日자민당, 파벌 존폐 놓고 입장차 뚜렷

“파벌 해소해 문제 원인 근절해야” vs “파벌, 조직 정리에 중요”

일본 집권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 등에 대한 검찰의 비자금 의혹 수사를 계기로 파벌 해체론이 불거졌지만, 당내 의견은 좀처럼 수렴되지 않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전날 자민당 정치쇄신본부가 전체 의원을 상대로 연 회의에서 파벌 해체를 둘러싼 의견이 갈렸다며 파벌에 대한 입장 차이는 한층 더 뚜렷해졌다고 17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특정 파벌에 소속되지 않은 이시카와 아키마사(石川昭政) 의원은 “파벌을 해소해 문제 원인을 근본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비자금 의혹의 중심인 아베파 소속 미야자와 히로유키(宮沢博行) 의원은 “아베파는 해산해야 한다. 아베파에 남아서 그 일을 도울 것”이라고 했다. 이에 비해 니카이파 소속 와시오 에이치로(鷺尾英一郎) 의원은 “파벌은 인재 육성이나 조직 정리에서 중요한 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마이니치신문도 150

명이 참여한 가운데 3시간 가량 이어진 이번 회의에서 50명 가량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내각·당직 인사 때 파벌 추천 금지안 부상…아베파 19일 의원총회 조율

하지만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당시 회의에서 파벌이라는 용어 대신 ‘정책 집단’이라는 용어를 써 일부 참석자의 반발 섞인 반응을 받기도 했다.

파벌 출신 중진 의원 상당수가 파벌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일반 시민 여론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기류다.

실제 교도통신이 지난 13~14일 범인 설문 결과 ‘해체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80.2%에 달했다.

하지만 자민당의 뿌리 깊은 파벌 정치가 해체의 길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중진 간부 간에도 입장차가 커 앞으

로 의견을 모으는 데 난항을 겪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산케이신문은 “방향성을 명확하게 내놓을 수 있을지 전망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교도통신은 자민당 파벌 문제와 관련해 내각이나 당직 인사 때 파벌 추천을 금지하는 방안이 정권 내에서 부상했다고 자민당 관계자를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현재는 부대신(차관)과 정무관(차관급)을 포함해 내각이나 당직, 국회 인사에서 파벌이 총리나 당 집행부에 추천 후보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비자금 사건으로 드러난 파벌 문제와 관련, 당내 규에 해당하는 ‘거버넌스 코드’에 이를 금지하도록 명기해 파벌의 자금 배분이나 인사 추천을 확실히 배제하는 것이다.

또 파티원 구매자가 공개되는 기준액도 현행 20만엔

(약 180만원) 초과에서 기준을 낮추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규정 법 개정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파벌인 아베파는 19일 의원총회를 열어 파벌 개

혁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방송 NHK는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비자금 의혹으로 추락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자민당의 체질을 쇄신하겠다며 당에 정치쇄신본부를 만들었다.

그는 정치쇄신본부의 본부장을 직접 맡았으며 스가 전 총리와 아소 다로 부총재에게 고문을 맡기는 등 모두 40여명으로 정치쇄신본부를 구성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달 중에라도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중간으로 정리한 후 당 차원에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정치자금법 개정 여부 등 국회 논의에도 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이천욱 기자



예멘의 친이란 반군 세력 후티

美 ‘홍해 도발’ 후티 3년만에 테러단체 재지정한다

미국이 예멘의 친(親)이란 반군 세력인 후티를 3년 만에 다시 테러단체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AP통신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CNN방송 등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 매체는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 등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최근 홍해에서 상선들을 공격하고 있는 후티를 ‘특별 지정 국제테러리스트’(SDGT·Specially Designated Global Terrorist)로 재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이를 오는 17일 공식 발표 할 예정이다. 내달 중순부터 SDGT 지정이 발효되면 미국 기업이나 개인이 후티에 제공하는 자금·물자·서비스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지원과 원조가 금지된다.

후티 조직원의 미국 입국도 금지되며 미국 금융기관 내 후티 보유 자산은 동결된다.

이번 조치는 후티 반군으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한 당국자는 이번 제재로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후티의 접근이 차단된다고 NYT에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그러나 이번에 후티를 ‘외국테러조직’(FTO·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 명단에 다시 옮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FTO는 지정된 단체를 지원하는 사람들까지도 제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SDGT와 구별된다.

후티를 FTO로 재지정하지 않는 것은 예멘의 민간인을 인도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에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AP는 설명했다. 후티가 미국 정부로부터 테러단체로 지정되는 것은 약 3년 만이다.

미국은 앞서 2021년 2월 후티를 SDGT와 FTO 명단에서 제외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막판인 2021년 1월에 후티를 SDGT와 FTO로 지정했다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 이를 모두 해제했다.

/ 안수영 기자

우크라, 연일 ‘제공권’ 강조…전투기 지원 촉구

드미트로 쿠데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2024년에는 러시아를 하늘에서 몰아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클레바 장관은 이날 스위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연설을 통해 “하늘을 통제하는 자가 전쟁이 언제, 어떻게 끝낼지 결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전날 WEF에서 군사·재정지원을 호소하며 “우크라이나가 이제 막 흑해에서 우위를 확보했듯이 제공권에서도 우위를 차지해야만 한다”고 언급했다.

우크라이나가 새해 들어 연일 제공권 장악을 강조하는 것은 전선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고 활로를 마련할 수단이라는 판단에서다. 우크라이나군은 작년 6월 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작년 8월 덴마크 방문 당시 전투기 조종석에 앉은 모습

트럼프 “카터, 바이든보단 훌륭하니 행복할 것” 싸잡아 조롱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의 공화당 후보에 도전 중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최근 부인상을 당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을 싸잡아 조롱했다.

16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과 시사지 뉴스워크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공화당 아이오와 주 코커스(당원대회) 승리 연설에서 “내 아내는 두 달 전 로저린 카터(카터 전 대통령의 부인)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행사는 정말 아름다웠고 지미 카터도 거기 있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나는 속으로 지미 카터는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왜냐면 그는 조 바이든에 비하면 훌륭한 대

통령으로 남을 테니까”라고 말했다. 99세의 나이로 호스피스 돌봄을 받고 있는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아내 로저린 여사를 잃었다.

로저린 여사는 그의 친구이자 연인이었으며 사업과 정치, 퇴임 후 활동까지 함께 한 동반자였다. 이들은 77년간 해로한 미국의 최장기 ‘페스트 커플’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카터 전 대통령을 끌어들여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한 것은 이번이 별써 3번째다.

로저린 여사의 사망 전날인 지난해 11월 18일에는 “바이든은 최악의 대통령이었다”며 “지금 이 순간 이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카터일 것이다. 카터 행정



트럼프 전 대통령

부는 지금 광대들에 비하면 정말 훌륭해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에 민주당 슈퍼팩(superc 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 ‘아메리칸 브릿지 21세기’는 “잔인하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성명을 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적 인생 40년 내내 같은 식이었다”며 “그는 결국 자기 뜻대로 되는 한 자신이 누구를 모욕하고 무시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최재민 기자

이렇게 똑똑한 금융
이렇게 똑똑한 금융
이렇게 똑똑한 금융

이토록 트렌디한 그룹
이토록 트렌디한 그룹
이토록 트렌디한 그룹

더나은 내일
더나은 내일
더나은 내일

단디
우디

DGB금융지주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DGB금융지주 DGB

SAMSUNG**BESPOKE 큐브™ Air**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삼성이 함께 응원합니다

가전을 나답게。

‘설연휴 승객 잡아라’…항공업계, 일본·동남아 중심 ‘증편’

대한항공, 국내선 16편 추가 운항

국내 항공사들이 내달 설 전후 항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승객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국제선에 임시 항공편을 투입한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설 연휴 기간 김포~제주, 김포~부산, 부산~제주 등 국내선에 16편을 추가 운항할 계획이다.

오는 20일부터는 인천발 일본 아오모리, 오이타 노선의 운항을 주 3회 재개하고, 지난 3일부터 주 3회 운항 중인 태국 방콕(돈므앙) 노선 운항을 내달 25일까지 이어간다.

아시아나항공은 설 연휴 기간 일본과 동남아 노선을 중심으로 임시편을 투입할



인천국제공항 하루 이용객,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20만명 돌파

예정이다. 일본 노선의 경우 설 연휴가 시

작되는 다음 달 9일과 마지막 날인 12일

인천~타이베이 노선에서는 내달 8~9일, 11~12일 하루에 왕복 1편씩, 인천~세부(필리핀) 노선에서는 내달 8일과 11

노선을 임시 운항한다.

인천~타이베이 노선에서는 내달 8~9일, 11~12일 하루에 왕복 1편씩, 인천~세부(필리핀) 노선에서는 내달 8일과 11

일 편도 2편씩 각각 추가 운항한다.

제주항공은 내달 7~16일 인천~다낭, 인천~사이판 운항을 기준 주 14회에서 21회로 늘린다.

티웨이항공은 내달 8일과 11일 인천~괌 노선 운항을 1편씩 증편한다.

진에어는 매일 왕복 2회 운항하던 인천~괌 노선의 내달 8·9·11·12일 운항 횟수를 3회로 늘린다.

이스타항공은 다음 달 8~12일 인천~타이베이 노선 항공편을 8편 증편한다.

에어로케이는 연휴를 앞둔 다음 달 8일부터 청주~타이베이 노선 운항을 매일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증편은 오는 3월 5일까지 유지한다.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는 설 연휴 증편 계획이 없다.

/ 강민재 기자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올해 최다채용 공공기관은 코레일

1천240명 계획해 6년연속 1위

인크루트 분석…건보공단 800명·
보훈복지의료공단 710명

올해 인력을 가장 많이 채용하는 공공기관은 1천명 이상을 뽑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 나타났다.

인크루트는 ‘2024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서 제공하는 디렉토리북을 통해 공공기관 151곳의 채용 규모를 분석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신입·경력 포함 올해 채용 규모가 가장 큰 공공기관은 코레일로, 사무와 기술 직무에서 1천240명 채용을 계획했다.

2022년(1천400명)이나 2023년(1천440명)보다 채용 인원은 줄었으나, 6년 연속 공공기관 중 최대 채용 규모를 유지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입 760명과 경력 40명 등 총 800명 채용 계획을 밝혔다.

/ 양희진 기자

혔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전일제 신입 기준 710명을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채용 상위 공공기관에는 한국전력공사(신입 557명), 근로복지공단(신입 448명), 한국수력원자력(신입 300명), 국방과학연구소(신입·경력 250명), 한국토지주택공사(신입 225명), 한전KPS(신입·경력 203명), 한국가스공사(신입·경력 178명) 등이 포함됐다.

올해 채용 계획을 뚜렷하게 밝힌 기업은 조사 대상 151곳 중 105곳이었다. 11곳은 정확한 채용 규모를 밝히지 않았고, 35곳은 미정이었다.

채용 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작년과 비교한 결과, 올해 채용 규모를 줄인 곳은 코레일과 한전KPS 2곳이다.

나머지는 최소 45명에서 최대 250명까지 규모를 늘렸다.

산업장관, 상의·환경협 찾아 “새 수출시장 개척 노력해주시길”

“엑스포 유치활동으로 수출텃밭 넓게 가꿔라”…경제단체·정부 ‘원팀’ 강조



악수하는 안덕근 장관과 최태원 회장

야 방문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류진 한 경협 회장과 면담했다.

안 장관은 면담에서 “올해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돼 경제 성장률이 2%대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지구촌 선거, 지정학적 리스크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민간 경제단체와 정부가 원 팀이 돼 수출·투자 등의 실물경제 회복, 첨단산업 육성, 공급망 등 대외 리스크 최 소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

자”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대한상의와 한경협이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새로 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동맹국들과 산 업협력 성과가 창출되도록 노력해달라”며 “시장경제 복원, 기업가 정신 확산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상의 면담에서 안 장관이 ‘올해 가 장 큰 목표는 수출을 제대로 키우고 안착시키는 일’이라고 하자, 최태원 회장은 “시장 대응을 하려면 작은 시장도 새롭게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성호 기자

한화 김동관, 다보스포럼서 ‘무탄소 추진 가스운반선’ 제시

연차총회서 ‘탈탄소 비전’ 공개…“글로벌 탈탄소에 중요 전환점”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석 중인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17일(현지시간) ‘글로벌 탈탄소 비전’을 공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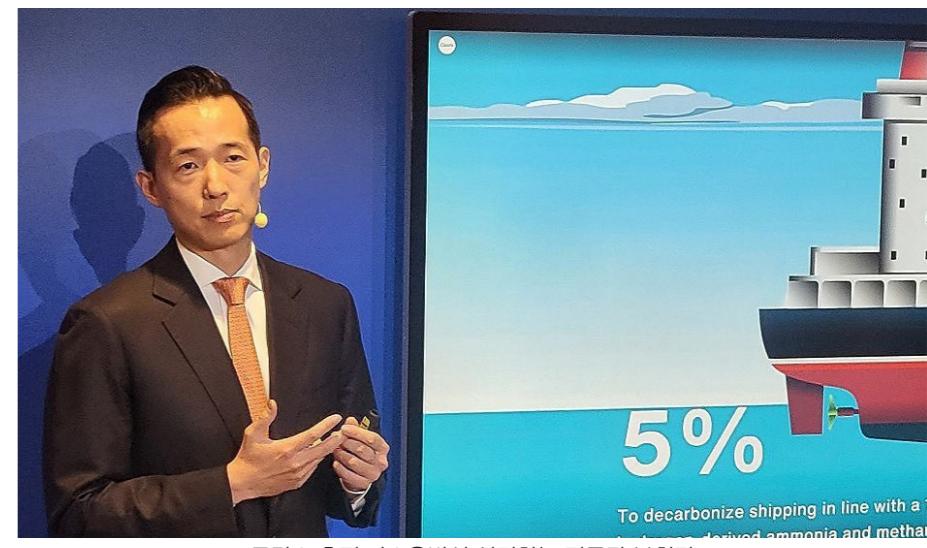
김 부회장은 이날 다보스포럼 연차총회 ‘세계 최초 탈화석연료 선박’ 세션에서 한화의 해양 탈탄소 솔루션을 제시했다고 한화가 전했다.

이번 탈탄소 비전의 핵심은 100% 친환경 연료만 사용하고 전기 추진도 가능한 ‘무탄소 추진 가스운반선’으로, 탈탄소 영역을 해양으로 확장한 것이다.

김 부회장은 “한화가 업계 최초로 개발하는 무탄소 추진 가스운반선은 글로벌 탈탄소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화는 100% 암모니아만으로 가동하는 가스터빈을 개발 중이다. 여기에는 무탄소 기술이 적용된다.

이러한 기술력이 적용된 친환경 선박이 해양 운송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



무탄소 추진 가스운반선 설명하는 김동관 부회장

죽에 중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김 부회장의 설명이다.

김 부회장은 또 무탄소 추진 가스운반선의 실증 계획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가스운반선과 같은 대형 선박의 경우 대규모 자본 투자와 2~3년의 건조 기간을 거쳐 20~30년간 운영되는 만큼 다양한 안정성 실증 작업을 통해 글로벌 수요

를 견인하겠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지난 2010년부터 매년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글로벌 주요 인사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그는 2013년 다보스포럼 당시 ‘영 글로벌 리더’에 선정됐으며 2022년에는 ‘정부 다보스 특사단’으로 활동했다.

/ 이형승 기자

처음부터 제대로 관리받자

연말정산 세액공제엔 연금이 필수인 거 아시죠?
세액공제는 물론 연금수익률까지!
NH투자증권 연금으로 처음부터 제대로 관리받으세요.



[투자 유의사항]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기획 변동, 환율 변동, 산업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연금계좌의 계약기간 만료 전 종료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6.5%)세율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DC/IRP가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허용 5년 만원까지 보호됩니다. ※DB가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QV/IRP에서는 퇴직금에 대한 운용/자산관리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연후, 상세 수수료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ETF/리츠 매매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나 보수기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TF/리츠별 상이 상세내용은 각 운용사 홈페이지 참조) ※ 한국금융투자협회 실무법 제23-04004호(2023.10.27-2024.10.26) 투자, 문화가 되다

NH투자증권



농림축산식품부는 권역별 농업혁신정책 실장이 17일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간담회를 열어 식품·외식업계와 가격

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업협회 등 6개 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이 자리에서 업계가 원재료의 국제가격 하락세를 국내 가격에 반영해 물가 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밀 국제가격은 지난 2022년 5월 t(톤)당 419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하락해 지난달 227달러로 떨어졌다.

설당 원재료인 원당 가격은 지난해 11월 t당 602달러에서 지난달 489달러로 하락했고 대두유 가격은 2022년 5월 1천 842달러에서 지난달 1천 97달러로 낮아졌다.

/ 배도형 기자

퇴직연금을 건강하게
하나연금닥터



연금을 이전하라

퇴직연금 정밀진단부터 상시 상담관리까지
연말 정산도 역시 **하나연금닥터**



하나은행

2023년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우수사업자 선정

하나은행

※하나연금닥터는 하나금융그룹 퇴직연금 전문 브랜드입니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퇴직연금 홈페이지(<http://pension.hanabank.com>), 모바일앱(하나1Q)을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퇴직연금 전용고객센터 1599-2080[운영시간(영업일 09:00~18:00)]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 바랍니다.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합니다. ※본 홍보물은 2024년 5월 27일까지 유효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사필 2023-광고-07437호(2023.10.30) / CC브랜드 231026-0255

제주 겨울채소 1212페스티벌…“농가 소득 향상 기대”

제주조공법인, 유통업체와 협력해 각종 할인 행사



제주 겨울채소 1212 페스티벌 기념식

제주산 겨울채소 판매 확대를 위해 전국 주요 매장에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제주조공법인)은 17일 오후 2시 경기 고양시에 있는 농협 고양유통에서 '2024년 제주 겨울채소 맛 건강 행복 UP! 1212 페스티벌' 기념식을 했다.

'1212 페스티벌'은 겨울철인 '12월, 1월,

2월'에도 땅이 얼지 않는 제주에서 생산되는 각종 채소를 판촉하는 행사를, 이달 31일까지 이어진다.

1212 페스티벌 대상 품목은 세척 무, 세척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콜라비 등 5개 품목이다. 제주조공법인은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세척 무 1천450t, 세척 당근 550t, 양배추 560t, 브로콜리 140t, 콜라비 160t

을 각각 판매할 예정이다.

기념식에는 제주도와 농협중앙회 관계자, 제주지역 품목별 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전국 농축협이 운영하는 983개 하나로마트는 이미 지난 1일부터 제주 겨울채소 카드 할인행사 및 소비 촉진 판촉 행사를 시작했다. 하나로마트 행사 기간은 24일

까지다.
대형마트인 이마트는 11일부터 전국 136개 매장에서 시작한 제주 물산전을 18일 종료한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지에스더프레쉬(GS The fresh)는 이날부터 23일까지 전국 442개 매장에서 제주 농산물을 구매해 스템프를 모으면 경품을 주는 판촉 행사를 한다.

온라인 유통사인 카카오메이커스는 제주 농가를 돋기 위해 배송비 무료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11번가는 25일부터 31일 까지 제주 겨울채소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제주농협 세일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현종철 제주조공법인 대표는 "경기 침체와 과잉 생산 등으로 겨울채소 재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비자 중심의 대대적인 판촉 행사를 통해 소비가 활발해지고 농가 소득도 향상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신민경 기자



쌀 전달하는 박성국씨

“배곯는 이웃 없도록”

24년간 쌀 28t 기부한 60대 농부

보은 박성국씨 매년 초 쌀

120포대 행정복지센터에 기탁

충북 보은의 60대 농부가 24년째 28t에 이르는 쌀을 기부하고 있다.

보은군은 농민 박상국(63)씨가 보은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10kg짜리 쌀 120포대를 기탁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는 새해가 되면 으레 쌀 포대를 가득 실은 트럭을 끌고 행정복지센터를 찾는다. 2001년 시작한 일이나 햇수로 24년째 다. 처음에는 대전과 청주의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찾아가 쌀을 내려주고 왔지만 이후 보은읍행정복지센터를 기부 창구로 정했다.

6만여평(약 20만m²)의 벼농사를 짓는 그는 이 지역서 세법 알려진 농부다. 태고난 성실함을 밀천 삼아 죽으라고 땅을 일궈 농사 규모를 키웠다. 20여년 전에는 집

근처에 정미소까지 차려 운영하고 있다.

그는 우연히 TV를 통해 한 조손가정의 딱한 사연을 접한 뒤 쌀 기부를 시작했다. 끼니 걱정을 하는 이웃에 직접 농사지시 쌀을 조금씩 나눈다는 취지였다.

그렇게 시작한 쌀 기부가 24년에 이르면서 누적 기부량만 줄잡아 28t에 달한다.

그는 "내 손으로 농사짓고 직접 도정한 쌀이다 보니 큰 부담 없이 나눌 수 있다"며 "가족들의 적극적인 응원도 기부를 있게 한 배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미소 지을 때 보조받은 사업비를 두고두고 사회에 환원한다는 각오로 농사를 짓는 동안은 쌀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보은읍행정복지센터는 그가 기부한 쌀을 보은읍내 경로당 등에 나눠줄 예정이다.

/ 황순길 기자



경남농협, 농촌 다문화가정 모국 방문 지원

경남농협은 농촌 다문화가정의 모국 방문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대상은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이후 한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도내 24개 가정 100명이다. 경남농협은 이들 가정에 왕복항공권과 가족당 체재비 70만원을 지원한다.

경남농협은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매

년 농촌 다문화가정의 모국 방문을 지원해오다가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업을 중단한 바 있다.

조근수 경남농협 본부장은 "앞으로도 농업·농촌을 지키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김채운 기자

김보미 강진군의장 불신임안 철회 해프닝 ‘일파만파’

지역구 국회의원 입장문에 군의회 의장 반박문으로 맞서

김보미 전남 강진군의회(34)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은 철회됐지만, 결의안 발의와 철회 배경을 놓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김보미 의장이 맞서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17일 낸 입장문에서 "강진군의회 의장 불신임안 철회를 위한 것은 노력에도 익명의 청년당원들이 '지역위원장 수수방관설'을 유포하는 등 허위사실을 퍼트려 이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결의안 발의 사실을 확인한 직후 관련 군의원들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당의 단합과 소통을 강조하고 철회를 끌어내기 위해 혼신을 다했는데도 '수

수방관했다', '총선 줄 세우기를 했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세력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익을 행기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이날 반박 입장문을 내고 "김승남 의원은 지역구 청년 당원들에 대한 겹박을 중단하고 차라리 저를 고소하라"고 맞섰다.

김 의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이 불신임 결의안이 발의하려고 할 때 김승남 의원께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청년당원들이 의견을 말할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허위사실 유포고, 법적으로 대응할 일인가"고 발끈했다.

그는 "심지어 (김 의원이) 결의안 발의

이후에 했다고 하는 '중재 노력'이라는 것도 저에게 강압적으로 사과문을 강요하는 것이었다"며 김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앞서 민주당 전남도당 청년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한 불신임안에 대해 "청년정치인 죽이기"라며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강진지역 청년당원들도 '정치 탄압'이라며 '기득권 구태정치 이웃'을 촉구했다.

김 의원 불신임안은 강진군의회 유경숙 부의장과 정중섭·윤영남·위성식·서순선·김창주 의원 등 6명이 지난 5일 발의했다가 본회의 상정 하루 전날 철회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폐거리 정치', 청년 정치 죽이기' 등 불신임안에 대해 역풍이 일자 철회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 장수경 기자

국토부 장관 “규제 완화해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 살리겠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규제를 대폭 완화해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도시재생 사업이 한창인 전북 익산시 중앙동 상가와 골목 등을 둘러보고는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존 도시재생 사업은 점 단위 거점시설 공급 위주로 추진돼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원도심에 중심 거점 기능을 부여하고 주거와 상업, 산업 기능이 집적된 복합개발거점을 조성하는 등 지역 특성을 살린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이 이날 찾은 중앙동은 익산역과 가까워 과거 상업시설이 몰렸으나 잇따른 신도심 개발로 상권이 이동하면서 침체기를 맞았다.

부 장관님 익산시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에 익산시는 역세권 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에게 편리한 정주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2018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 중이다.

박 장관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식품을 러스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2단계 사업의 후속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이 이날 찾은 중앙동은 익산역과

방 도시재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오후에는 익산시 왕궁면에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를 방문해 2단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은 2028년까지 3천855억원을 들여 기존 국가식품클러스터 산단 인근에 207만m²(63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기존 1단계가 식품제조 중심이라면 2단계는 미래형 산단으로 견학과 전시, 체험이 가능한 식품문화복합산업단지로 개발된다.

박 장관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식품을

제조·판매·유통·_logistics

**항상 그리워하던
고향이 도착했습니다!**

고향의 맛, 고향의 그리움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로 마음을 전하고
우리 농축산물을 가정에서 받아보세요

띵~동!

함께하는 100년농협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의 자선의 주소지를 제외한 원하는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과 기부금의 일정액을 담배금으로 제공하는 제도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기부금 세액 감면
10만원까지 전액 제제(0만원 초과분 16.5% 감제)
농축산물 담배금 제공
기부금의 30% 상당 농축산물 담배금 제공



BNK 부산은행

2024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02.16 – 25

BEXCO
BUSAN
KOREA



BUSAN 2024

WORLD TEAM TABLE TENNIS CHAMPIONSHIPS FINALS

부산시, 설 명절 앞두고 2조원대 정책자금 지원 현장간담회

박형준 시장,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화…“맞춤형 금융정책 발굴”



부산시 정책자금 현장간담회

박형준 부산시장이 17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들을 만나 정책자금 지원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부산시는 이날 오전 부산신용보증재단 8층 회의실에서 ‘시 정책자금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김일호 부산지방중기청장, 성동화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문철홍 중소기업

중앙회 부울경본부장, 김용규 BNK부산은행 본부장 등 유관기관 대표와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제3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해 대비 2천200억원이 증액된 연대 최대 규

모인 2조115억원의 정책자금을 투입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차보전과 저금리 융자, 보증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정책자금 지원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 지역 소상공인 제품 적극 이용 ▲ 창업 자금 지원 확대 ▲ 중소기업 대출이자 지원 확대 ▲ 대출 상환 유예제도 시행 등을 건의했다

시는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 사항을 검토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금융지원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고금리 등 지속되는 경제위기로 경영환경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시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정책자금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설 명절을 앞두고 필요한 곳에 적기에 지원돼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송원기 기자



채용공고 살펴보는 구직자들

제조업 등 빙일자리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200만원 지원

구인난이 있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올해 최대 20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빙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 채용 청년지원금’이 올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제조업을 비롯한 빙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청년에게 취업 3개월과 6개월 차에 각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 사

이 제조업 중소기업에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15~34세 청년이 대상이 된다.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근속하고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것이 조건이다. 대상 청년은 오는 22일부터 고용24(www.work24.go.kr)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최장 2년간 최대 1천200만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올해 확대 시행된다.

노동부는 대상 청년 요건을 ‘실업기간

6개월 이상’에서 ‘4개월 이상’으로 완화한다. 기존에 대학·대학원 졸업 후 3개월 이내인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올해부터는 졸업자들도 포함한다. 정부는 이밖에도 올해 청년들의 일경험 기회를 늘리고 취업·훈련 지원을 강화한 다양한 청년일자리 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대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작년 12개 대학, 3만 명에서 올해 50개 대학, 12만 명으로 확대하고, 고교생 1만 명에게도 추가로 지원한다.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를 주는 미래 내일 일경험 사업은 작년 2만6천 명에서, 올해 4만6천 명으로, 디지털 분야 등의 훈련을 제공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은 3만6천 명에서 4만4천 명으로 확대된다.

취업실패와 대인관계 기피, 자신감 부족 등으로 구직의욕이 떨어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은 8천 명에서 9천 명으로 늘리고, 프로그램 이후 취업하면 50만원의 인센티브도 신규 지급한다.

/ 김성균 기자

스타필드 수원에 운동하러 간다…최고급 피트니스클럽 26일 오픈

실내 골프연습장, 수영장, 테니스장, 사우나 등 갖춰

등 5성 호텔급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갖췄다. 피트니스는 최고급 사양의 글로벌 운동기구 브랜드 ‘라이프 피트니스’ 제품과 최고 권위의 미국스포츠의학회(NASM)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트레이너팀을 통해 고객에게 최상의 맞춤형 피트니스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골프는 개인 연습 타석과 실내 어프로 치존, 스크린 게임룸으로 구성됐고 좌우

의 회원이 운동을 즐길 수 있다. 자동으로 공을 분사하는 스마트볼 머신으로 1인 경기도 가능하다. 자연 채광이 들어오는 수영장은 선베드와 자쿠지, 최신 건식식 사우나 시설을 갖췄으며, 체형분석 서비스도 체험할 수 있다.

콩코드는 1천500평 규모에 피트니스, 실내 골프연습장, GX룸, 수영장, 사우나

타 겸용 타석도 이용할 수 있다.

골프 전문지 골프다이제스트가 선정한 ‘세계 50대 골프교습가’에 이름을 옮린 고덕호 프로의 ‘PGA(미국프로골프) 아카데미’도 개설된다.

GX룸에서는 국내 최초의 가상 실내 사

이를 프로그램인 ‘메타버스 스피닝’을 선

보인다. 콩코드에는 또 정규 단식 코트 사

이즈의 테니스장이 설치돼 다양한 연령대

의 회원이 운동을 즐길 수 있다. 자동으로

공을 분사하는 스마트볼 머신으로 1인 경

기도 가능하다. 자연 채광이 들어오는 수

영장은 선베드와 자쿠지, 최신 건식식 사

우나 시설을 갖췄으며, 체형분석 서비스

도 체험할 수 있다.

콩코드는 1천500평 규모에 피트니스,

실내 골프연습장, GX룸, 수영장, 사우나

타 겸용 타석도 이용할 수 있다.

골프 전문지 골프다이제스트가 선정한

‘세계 50대 골프교습가’에 이름을 옮린 고

덕호 프로의 ‘PGA(미국프로골프) 아카데

미’도 개설된다.

GX룸에서는 국내 최초의 가상 실내 사

이를 프로그램인 ‘메타버스 스피닝’을 선

보인다. 콩코드에는 또 정규 단식 코트 사

이즈의 테니스장이 설치돼 다양한 연령대

의 회원이 운동을 즐길 수 있다. 자동으로

공을 분사하는 스마트볼 머신으로 1인 경

기도 가능하다. 자연 채광이 들어오는 수

영장은 선베드와 자쿠지, 최신 건식식 사

우나 시설을 갖췄으며, 체형분석 서비스

도 체험할 수 있다.

콩코드는 1천500평 규모에 피트니스,

실내 골프연습장, GX룸, 수영장, 사우나

타 겸용 타석도 이용할 수 있다.

골프 전문지 골프다이제스트가 선정한

‘세계 50대 골프교습가’에 이름을 옮긴 고

덕호 프로의 ‘PGA(미국프로골프) 아카데

미’도 개설된다.

GX룸에서는 국내 최초의 가상 실내 사

이를 프로그램인 ‘메타버스 스피닝’을 선

보인다. 콩코드에는 또 정규 단식 코트 사

이즈의 테니스장이 설치돼 다양한 연령대

의 회원이 운동을 즐길 수 있다. 자동으로

공을 분사하는 스마트볼 머신으로 1인 경

기도 가능하다. 자연 채광이 들어오는 수

영장은 선베드와 자쿠지, 최신 건식식 사

우나 시설을 갖췄으며, 체형분석 서비스

도 체험할 수 있다.

콩코드는 1천500평 규모에 피트니스,

실내 골프연습장, GX룸, 수영장, 사우나

타 겸용 타석도 이용할 수 있다.

골프 전문지 골프다이제스트가 선정한

‘세계 50대 골프교습가’에 이름을 옮긴 고

덕호 프로의 ‘PGA(미국프로골프) 아카데

미’도 개설된다.

GX룸에서는 국내 최초의 가상 실내 사

이를 프로그램인 ‘메타버스 스피닝’을 선

보인다. 콩코드에는 또 정규 단식 코트 사

이즈의 테니스장이 설치돼 다양한 연령대

의 회원이 운동을 즐길 수 있다. 자동으로

공을 분사하는 스마트볼 머신으로 1인 경

기도 가능하다. 자연 채광이 들어오는 수

영장은 선베드와 자쿠지, 최신 건식식 사

우나 시설을 갖췄으며, 체형분석 서비스

도 체험할 수 있다.

콩코드는 1천500평 규모에 피트니스,

실내 골프연습장, GX룸, 수영장, 사우나

타 겸용 타석도 이용할 수 있다.

골프 전문지 골프다이제스트가 선정한

‘세계 50대 골프교습가’에 이름을 옮긴 고

덕호 프로의 ‘PGA(미국프로골프) 아카데

미’도 개설된다.

GX룸에서는 국내 최초의 가상 실내 사

이를 프로그램인 ‘메타버스 스피닝’을 선

보인다. 콩코드에는 또 정규 단식 코트 사

이즈의 테니스장이 설치돼 다양한 연령대

의 회원이 운동을 즐길 수 있다. 자동으로

공을 분사하는 스마트볼 머신으로 1인 경

기도 가능하다. 자연 채광이 들어오는 수

영장은 선베드와 자쿠지, 최신 건식식 사

우나 시설을 갖췄으며, 체형분석 서비스

도 체험할 수 있다.

콩코드는 1천500평 규모에 피트니스,

실내 골프연습장, GX룸, 수영장, 사우나

타 겸용 타석도 이용할 수 있다.

골프 전문지 골프다이제스트가 선정한

‘세계 50대 골프교습가’에 이름을 옮긴 고

덕호 프로의 ‘PGA(미국프로골프) 아카데

미’도 개설된다.

GX룸에서는 국내 최초의 가상 실내 사

이를 프로그램인 ‘메타버스 스피닝’을 선

보인다. 콩코드에는 또 정규 단식 코트 사

이즈의 테니스장이 설치돼 다양한 연령대

의 회원이 운동을 즐길 수 있다. 자동으로

공을 분사하는 스마트볼 머신으로 1인 경

KB금융그룹 | 국민의 푸른색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증권사
PB

한 명쯤은

알면
좋잖아요

이제, 내 투자에도 맘는 구석이 생기겠다!



비대면 프라이빗
자산관리 서비스

**KB증권
PRIME CLUB**

- ☑ 자산관리 규모 제한 없이!
- ☑ 누구나 전화나 톡으로 뚝딱!



PRIME 센터
무료 자산관리 상담
1566-0055

투자를 뚝딱! **깨비증권**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3627호(2023.09.26~2024.09.25) *투자자는 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자산 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 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일부 또는 전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국내 주식 거래 시 수수료(비대면 계좌) HTS/홈페이지 0.015%/모바일 0.12%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 거래 이자율은 비대면 계좌(또는 위탁수수료 혜택계좌)가 영업점 개설 계좌보다 더 높게 적용됩니다.(비대면 계좌 최대 연 9.1%~최소 연 5.5%, 일반 계좌 최대 연 9.1%~최소 연 4.9%) *PRIME CLUB 1만 원 결제 유형(자동이체)으로 가입 시 월 1만 원 이용 요금 출금되며, '프라임클럽 매월 1종목 증정 이벤트'에 참여 가능합니다.(자세한 내용은 '프라임클럽 매월 1종목 증정 이벤트' 공지 참조) *PRIME CLUB 무료 회원 가입 시 별도 비용 없이 계속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KB증권

골 맛 본 이강인·황인범, 조별리그 1차전 베스트 11 선정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시작부터 기분 좋게 골 맛을 본 이강인(파리 생제르맹)과 황인범(즈베즈다)이 나란히 조별리그 1차전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AFC는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번 대회 조별리그 1차전 12경기를 통틀어 최고 활약을 보여준 11명의 선수를 공개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에서는 미드필더로 이강인과 황인범이 포함됐다.

이강인은 지난 15일 클린스만호의 첫 경기로 펼쳐진 바레인전에서 멀티 골을 폭발했다.

오른쪽 윙어로 나선 이강인은 득점 외에도 저돌적인 드리블과 정교한 왼발 롱



기뻐하는 이강인·황인범

페스토 클린스만호의 공격을 이끌었다.

황인범도 1골 1도움을 작성하며 펄펄 날았다.

야전사령관으로 클린스만 감독에게 낙점된 황인범은 바레인전 전반 38분 선제 골을 터뜨렸고, 후반 23분에는 정확한 패

스로 이강인의 득점도 도왔다.

일본이 베트남을 4-2로 꺾는 데 앞장 선 미나미노 다쿠미(일본)와 호주의 크레이그 굿윈이 이강인, 황인범과 함께 미드필더진을 이뤘다.

개최국이자 디펜딩 챔피언 카타르의 에이스 아크람 아피프와 태국의 스트라이커 수파차이 차이데드가 투톱으로 배치됐다. 후방에서는 압둘 라흐만 웨이스(시리아)-알리 알부라이히(사우디아라비아)와 아흐메드 알카마시(오만)-마흐무드 알마리(요르단)가 포백을 이뤘다.

알마르디는 말레이시아와 첫 경기에서 멀티 골을 폭발할 정도로 공격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나 AFC는 측면에서 뛴 알마르디를 풀백으로 뒀다.

/ 최준용 기자



김하성

미국 매체 “김하성, 다음 비시즌 FA 6위 SD, 연장계약 나설 듯”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2024시즌을 마치고 자유계약선수(FA) '잭폿'을 터뜨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CBS스포츠는 17일(한국시간)

2024-2025 FA 시장에 풀리는 선수들의 랭킹을 매기며 김하성을 6위에 올렸다.

1~5위는 후안 소토(뉴욕 양키스), 알렉스 브레그먼(휴斯顿 애스트로스), 코빈 벤스(밀워키 브루어스), 제 헐러(필라델피아 필리스), 호세 알투베(휴斯顿 애스트로스)로 쟁쟁한 빅리거들이다.

김하성은 2019년 내셔널리그 신인왕이자 2022년 MLB 타점왕 출신의 피트 알론소(뉴욕 메츠), 골드 글러브 4회·실버 슬러거 5회 수상에 빛나는 폴 골드슈미트(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등을 따돌리고 6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한편, 지난 시즌 최고의 시간을 보낸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본격적인 2024시즌 준비에 나선다.

김하성은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한다. 김하성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인 훈련을 한 뒤 팀 스프링캠프에 합류할 것"이라며 "지난해와 비슷하게 훈련 계획을 짰다"고 전했다.

김하성은 지난해에도 1월 27일 미국으로 출국해 최원재 개인 코치와 기술 훈련에 전념한 뒤 팀 스프링캠프에 합류했다.

올해는 작년보다 일주일 가량 먼저 미국으로 이동해 기술 훈련에 전념하고 다음 달 초 스프링캠프지인 미국 애리조나 주 피오리아로 이동할 계획이다.

/ 고정수 기자

'왕좌는 어느 팀으로'...프로당구 팀리그 18일 포스트시즌 시작



프로당구 PBA 팀리그 일정

프로당구 PBA 팀리그가 '최후의 왕좌'를 걸고 18일부터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PBA 스타디움에서 열릴 포스트시즌에 들어간다.

NH농협카드의 중복 우승으로 인한 나머지 한자리는 라운드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던 팀 가운데 종합 순위가 가장 높은 SK렌터카가 차지했다.

이번 포스트시즌은 전체 9개 구단 가운데 NH농협카드(1·3라운드 우승)를 비롯해 에스와이(2라운드 우승), 크라운해태

포스트시즌 대진은 정규라운드 종합 순위에 따라 나뉜다.

18일 오후 9시 30분에는 하나카드(종합 4위)-에스와이(종합 6위)의 준플레이오프(3전 2승제) 1차전이 열리고, 2차전은 19일 오후 4시에 치러진다.

만약 시리즈 전적 1승 1패로 맞서면 19일 오후 9시 30분에 3차전으로 플레이오프(5전 3승제) 진출 팀을 가린다.

20일부터는 플레이오프가 치러진다. 플레이오프는 A와 B로 나뉘어 하루 두 경기가 진행된다.

먼저 20일 오후 3시 하나카드-에스와이 준플레이오프 승리 팀이 정규 시즌 종합 1위를 차지한 NH농협카드와 플레이오프 A를 벌인다. 같은 날 오후 8시 30분부터는 크라운해태(종합 2위)와 SK렌터카(종합 3위)의 플레이오프 B가 이어진다. 우승팀을 가리기 위한 파이널(7전 4승제)은 25일 오후 4시 1차전이 열린다.

PBA는 포스트시즌을 맞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우승팀 예측 이벤트를 진행한다. 파이널 우승팀을 예측하면 10명을 추첨해 사인볼과 우승 기념 기념품을 제공한다.

/ 이성윤 기자



지난해 풋볼 페스타 우승 학생들

유소년 축구잔치 '풋볼 페스타' 내달 영덕서 개최

유소년 축구 꿈나무를 위한 잔치 '풋볼 페스타'가 내달 23일부터 28일까지 경북 영덕에서 개최된다.

54년 역사의 축구 전문 미디어 베스트 일레븐과 영덕군이 공동 개최하는 이 행사에서는 유치부부터 순수 아마추어 초등부, 중등부, 그리고 '엄마 풋살', '아빠 축구' 등 11개 부문에서 100여개 팀이 웃음 가득한 경쟁을 펼친다.

12세 이하부 우승팀에 주어지는 해외 교류 기회를 포함해 총 2천500만원 규모의 시상이 이뤄진다.

주요 부문 결승전 경기는 주관방송사인 포항MBC를 통해 녹화 중계된다.

참가 신청은 이달 15일부터 내달 2일까지 베스트일레븐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 조정민 기자



친환경 에너지 전문기업 종합사업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포스코에너지와 하나가 되어 더 밝고 더 따스한 미래를 열어갑니다

·LNG사업 밸류체인 완성·



With POSCO

‘파묘’ 최민식 “김고은 굿하는 연기 감탄…‘투잡’ 뛸까 걱정도”

‘검은 사제들’ 장재현 감독 신작…김고은 “무속인에게서 굿 배워”

“출연을 제안받았을 때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이 캐릭터가 땅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땅의 고귀함을 알아보는 그 가치관이 와닿았어요.”

장재현 감독의 영화 ‘파묘’ 주연 배우 최민식은 17일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시나리오를 읽던 때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다음 달 개봉하는 ‘파묘’는 거액의 돈을 받고 수상한 묘를 이상한 풍수사와 장의사, 무속인들에게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을 담은 작품이다. 최민식은 40년 경력의 베테랑 풍수사 상덕 역을 맡았다. 최민식이 오컬트 장르 영화에 출연하기는 데뷔 35년 만에 처음이다.

그는 “평소 무서운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면서도 “감독님을 믿고 출연을 결정했다. 전작들이 너무 좋지 않나”며 출연 배경을 밝혔다.

원훈을 달래는 무당 화림을 연기한 김고은 역시 ‘파묘’로 오컬트 영화에 처음 도전했다. 절친한 사이인 박정민이 캐스팅이 성사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박정민은 장 감독의 전작 ‘사바하’(2019)에 출연 한 바 있다.

김고은은 “박정민이 전화를 걸어와 ‘파묘’ 대본을 꼭 한 번 봐달라고 했다”면서 “감독님이 (화림 역으로) 너를 너무 원하



배우 최민식(왼쪽부터), 김고은, 유해진, 장재현 감독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영화 ‘파묘’ 제작발표회에 참석하고 있다.

는데 네가 거절할까 봐 미리 얘기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라고 회상했다.

작품을 수락한 김고은은 실제 무속인을 선생으로 모시고 몸짓, 춤사위, 표정 등 굿의 전반적인 과정을 배웠다.

선생의 집까지 찾아가 함께 밥을 먹으며 연습에 매진했다는 그는 “경문을 외이고 퍼포먼스를 하고 징을 치는 모든 모습이 전문가다워 보여야 한다는 강박이 강했다”고 털어놨다.

최민식은 김고은이 굿하는 장면이 “‘파묘’의 백미 중의 백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고은 배우의 연기를 보니 ‘와’ 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다”면서 “김고은

씨가 걱정되기도 했다. ‘이러다가 투잡 뛰는 거 아니야? 둇자리 까는 거 아니야? 영화 떠나면 안 되는데’ 싶었다”며 웃었다.

장 의사 영근 역의 유해진도 김고은의 연기를 두고 “저라면 해낼 수 없었을 것”이라며 염지를 치켜세웠다.

유해진 역시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 유해를 수습하는 법을 익혔다고 한다.

그는 “극 중 영근은 대통령의 장례를 맡았을 정도로 최고의 장의사”라면서 “어떻게 하면 어설픈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파묘’로 스크린에 데뷔하는 이도현은 군 복무 중이라 제작보고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는 영상을 통해 “실력은 물론 외모까지 갖춘 MZ세대 무속인”이라고 캐릭터를 소개했다. 그는 화림의 제자 봉길을 연기했다.

‘검은 사제들’(2015), ‘사바하’로 자기만의 장르를 구축한 장 감독의 신작인 만큼 ‘파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뜨겁다. 온라인에 게시된 1차 예고편의 총 조회수가 1천800만회를 넘어서 정도다.

장 감독은 그러나 ‘파묘’는 전작 두 편과는 완전히 다른 작품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전작에선 어떻게든 장면을 예쁘게 찍으려고 했지만 ‘파묘’는 배우들의 에너지와 기세에서 나오는 이상한 에너지를 담고 싶었다”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찍으려고 하다 보니 힘들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미묘한 실내감을 표현하기 위해 ‘파묘’에는 CG(컴퓨터그래픽)도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

장 감독은 “오컬트가 아니라 현실 판타지라 생각하고 촬영했다”며 “CG의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았고, 배우들도 블루스크린이 아닌 실제(현장)를 보여주고 연기하도록 했다. 그게 배우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 이은정 기자

아이브 장원영, 유튜버 상대 1억원 손해배상 소송 승소



이번 판결은 그동 장원영 개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 박씨가 응소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21일 무변론으로 마무리됐다.

스타쉽은 “당사가 제기한 소송은 이 달 중 변론을 앞두고 있다”며 “탈퇴수용소를 형사 고소한 건은 최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돼 준엄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탈퇴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가요계에서는 해당 채널 운영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해왔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스타쉽 관계자는 “아티스트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합의 없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팬들의 제보나 자료가 큰 도움이 되니 지속적인 제보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 박소희 기자

아이유, 3월부터 월드투어

요코하마·LA 등 18개 도시 순회



가수 아이유가 월드투어에 나선다.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아이유가 오는 3월 서울을 시작으로 월드투어 ‘HEREH’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과 일본 요코하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독일 베를린, 미국 로스엔젤레스(LA) 등 18개 도시에서 콘서트가 열린다.

2019년 아이유의 아시아투어 ‘러브, 포엠’(Love, Poem) 이후 약 5년 만의 국내외 투어로 서울 공연은 오는 3월 2~3일과 9~10일 열린다. 공연 날짜 이외의 상세한 정보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 최영선 기자

SBS, ‘세상에 이런 일이’ 폐지 검토…PD들 “프로그램 지켜야”



26년째 방송되고 있는 SBS의 장수 시사교양 프로그램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이하 ‘세상에 이런 일이’)가 폐지 기

로에 놓였다.

SBS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 서 “세상에 이런 일이” 폐지 여부 등을 다

각도로 논의 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세상에 이런 일이’는 1998년 5월 처음 방송됐다. 제목처럼 신기한 사람이나 사건을 소개해 웃음과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방송인 임성훈과 배우 박소현이 방송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메인 MC를 맡고 있으며 두 사람은 2018년 9월 1천회를 맞이해 SBS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SBS는 프로그램이 오래된 인상을 주고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세상에 이런 일이’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상에 이런 일이’의 시청률은 최근 2%대를

기록 중이며 올해 최고치는 3.4%다.

시사교양본부 소속 PD들은 SBS 내부 계시판에 글을 올려 ‘세상에 이런 일이’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PD들은 “지난 12일 열린 시사교양본부 정기 회의에서 시사교양국장에게서 공식적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며 “본부의 입장은 프로그램 폐지를 반대하고 시간대 이동을 요청한다는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힘을 모아 ‘세상에 이런 일이’를 지켜야 할 때”라며 “본부장과 국장, CP(책임프로듀서)들은 시사교양본부의 상징과 같은 이 프로그램 폐지를 막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배도현 기자

경찰연합신문

www.koreapolicenews.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175

편집인 최영민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민영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기50142

구독광고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태로운 기계의 기회를
잠재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
• 개인연체채권 매입면드
• 우후 저율증 국유재산 관리
•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 OnBid(온비드)
•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온기업)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A THING OF BEAUTY

시선이 머무는 순간

GENESIS G80

